

해남군, 기후변화 농업연구단지 유치 총력

전남도 핵심 현안사업 2023년까지 국비 800억원 투입 민·관·학 추진단 구성...아열대 작물 재배·연구 최적지

해남군이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유치를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2일 해남군에 따르면 군은 전남도의 국비 지원 요청 핵심 현안 사업 중 하나인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민·관·학 연계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은 한반도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연구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아열대 작물 재배 등 기후적응 기술 연구와 관련 분야 인력양

성, 6차 산업 인프라 구축 등 올해부터 2023년까지 국비 800억원 이상을 투자해 120ha의 농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게 된다.

올해 정부예산 5억원이 반영돼 전남도에서 기본구상 및 기본설계 중으로 해남군도 올해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입지분석, 개발 컨설팅 및 콘텐츠 개발 등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해남군은 지난 17일 부군수를 추진단장으로 기획실, 농정과 등 관련 부서

장, 농업관련 단체장, 언론인, 학계 전문가 등 민·관·학 연계 20명 내외의 농업연구단지 추진단을 구성, 적극 운영할 방침이다.

또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 기본구상 용역과 함께 기존 관공자원과 연계가 가능하고 개발이 용이한 최적의 입지 선정, 유치에 대한 타당성 분석 등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해남은 한반도 기후 변화의 관문으로 연평균 기온 14도 이상의 해양성 난대기후대에 속해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 및 연구 최적지이자 전남 최대의 아열대 작물 재배 면적(123ha)을 가진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의 메카인 만큼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명현관 해남군수가 지난 3월 직접 김영록 전남도지사 면담을 통해 농업연구단지의 해남 유치를 적극 피력하는 한편, 4월 열린 도지사와 해남 군민과의 대화에서도 관련 분야 주민들의 적극적인 유치 건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해남은 전국 최대 농업업이자 국도 최남단에 위치해 아열대 작물 연구를 위한 최적의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는 만큼 군민과 합심해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진도 군수가 찾아가는 '이동군청' 조도면 서거차도 주민 불편 들어

도서 지역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운영하는 이동군청이 지난 21일 조도면 서거차도에서 열렸다.<사진>

진도군은 지난 4월 관매도를 시작으로 교통이 불편하고 의료서비스가 취약한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현장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동군청'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이동군청에서는 이·미용, 이동 세탁, 이동 목욕, 치매와 정신 상담 보건 서비스, 농기계 수리 등에 봉사단체와 공직

자들이 참여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동진 진도군수도 주민과의 대화, 사업 현장 방문 등을 진행하며 주민불편 사항을 청취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찾아가는 이동군청 운영으로 생활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함께 주민들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렸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소통하는 현장정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24일 완도 보길도 청별리 물양장과 운선도 원림 일원에서 '보길 운선도 문화축제'가 열린다. 음악여행과 사진전 등이 열리는 세연정. <완도군 제공>

완도 보길도서 '보길 운선도 문화축제'

내일 개막... '미스트롯' 송가인·송대관 가수 특별무대

완도 보길도 청별리 물양장과 운선도 원림 일원에서 '제15회 보길 운선도 문화축제'가 열린다.

24일 오전 11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공연과 체험, 전시, 체육 행사, 특별 프로그램 등이 다채롭게 마련됐다.

축제기간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차지한 송가인과 걸그룹 바바, 송대관, 리틀 싸이 등이 출연해 신나는 무대를 선사한다.

문화해설사와 함께 세연정까지 함께 걸어보는 '보길도 세연정 걷기', '손 글씨 써주기', '보길도 세연정 음악 여행', '해양치유 프로그램 체험' 등도 마련된다.

보길도는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고 사람과 자연이 하나가 되는 곳이다.

세연정 탐방로 일원에서는 지역 작가들이 참여한 보길도 유적지와 자연을 담은 사진전을 연다. 먹거리 장터와 특산품 판매코너를 통해 신선한 전복을 저렴한 가격에 맞출 수도 있다.

보길 운선도 문화축제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보길 운선도 문화축제는 문화와 역사를 체험하고 낭만을 느낄 수 있는 축제"라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완도군, 65세 이상 보건소 등 진료비 30% 감면

내달부터...비급여 항목 제외

완도군이 다음 달부터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만 65세 이상 주민에게 비급여를 제외한 진료비 본인 부담금의 30%를 감면한다.

진료비 감면은 만성·복합질환 증가로 의료기관 이용이 불가피한 노인들의 과중한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고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시행한다.

진료비 감면은 지역 어르신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사회보장을 도모하기 위한 민선

7기 군수 공약사항이다.

군은 지난달 30일 관련 조례를 개정,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다음 달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영양수액 등 비급여 항목

을 제외한 진료비 본인 부담금의 30%를 감면받는다.

진료비 청구 프로그램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을 정비하는 등 준비를 완료했다.

완도에 사는 만 65세 이상 인구는 1만 5749명으로 전체 군민의 31%를 차지한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반려동물전문가 강형욱씨가 전하는 '희망메시지' 진도군, 청년아카데미 특강 오늘 군청 대회의실에서

진도군이 반려동물전문가 강형욱씨를 컴퍼니 대표(사진)를 초청, 청년아카데미 특강을 개최한다.

23일 오후 2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특강은 '반려견을 통해 세상에 전하는 희망 메시지' 주제로 진행된다.

방송인과 유튜브로 활동하는 강 대표는 이번 강연에서 현재 직업을 갖게 된 열정과 동기, 세상과의 소통, 반려견의 의미 등 현장에서 겪었던 생생한 경험담을 군민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어갈 청년이 돌아오는, 행복한 보배로운 땅, 진도군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그린궁 HOME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